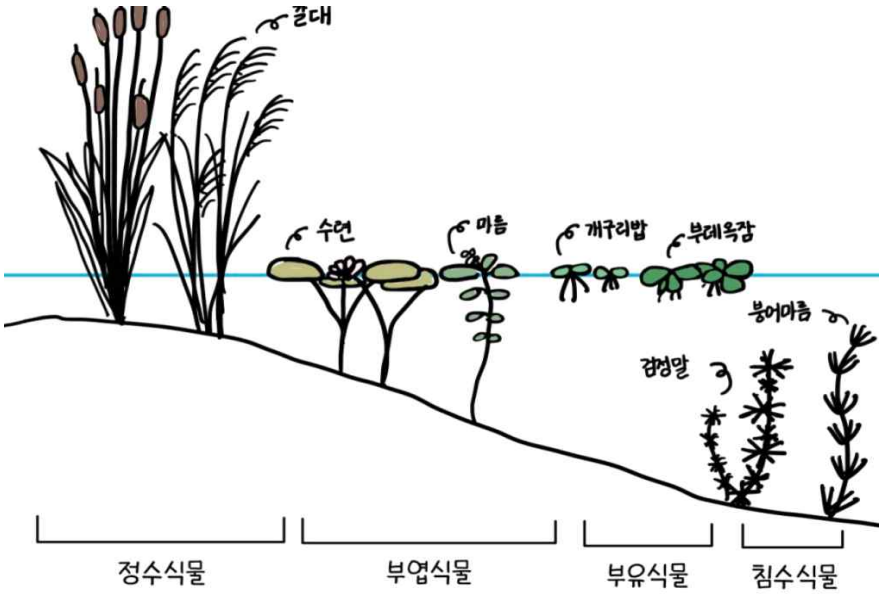
20년도 서울시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4번 문항

제가 위의 문제에 대해 해설을 준비 할 당시에는 자라풀이 부유식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래 사진과 그림에서와 같이 자라풀은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잎이 물위에 떠서 생활하며,
줄기는 포복형처럼 옆으로 뻗어 있고, 뿌리는 부레옥잠처럼 짧게 달려있습니다.
수험생분께서 문의하셔서 국가표준식물, 국립수목원, 국립생태원의 수생식물 연구팀에 까지 자료조사를 한 결과
자라풀은 부엽식물도 되고 부유식물도 된답니다.
하여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라풀은 기본적으로 부엽식물에 속하며, 부유식물이기도 합니다.
수생 즉 물에서 종자상태로 번식을 시작할 때는 부엽식물로 생활 및 번식을 계속 하다가 일정수심이하에서 줄기가 절단 되거나 줄기에서 번식할 경우 부유형태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생활환경(수환경)의 다양한 상황변화에 따라 부유형태로 생육하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었다는 연구(논문)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생식물학회에서는 이 자라풀을 부엽&부유식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인터넷에 자라풀을 검색해보면 부유식물로 구분하는 비율이 높고, 부엽식물로 구분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옵니다.



수매화인 부유식물은 뿌리를 물에 내리되 바닥에 고정시키지 않고 잎은 수면에 뜨는 식물들이다. 식물사전에 따르면 개구리밥, 물옥잠, 자라풀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필자는 물옥잠과 자라풀을 부엽식물 형태로 자주 접했다. 물에 떠있기보다는 물기가 흥건한 습지에서 뿌리를 바닥에 내린 채 자생하던 모습을 더 많이 보았다. 식물도 처한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달리함을 알 수 있다.